

# 환.율.폭.풍.에 맞서는 몇 가지 방법



두 명 이상 모이면 경제를 이야기한다. 신문, 방송 등 언론도 경제의 어려움을 말하고 정치인도 TV에 나와 경제에 대해 토론한다. 그렇지만 누구도 현재 상황에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고환율, 원자재폭등, 고유가 3중고를 넘어 더 넓고 큰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 벤처.

환율파고에 맞서는 금융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기초체력을 키워 경제발전의 든든한 바탕이 되는 우리 벤처를 기대한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돌파한 지 오래다. 항공, 유화, 철강 등 원재료 수입 비중이 큰 업종들은 비명을 지르고 원자재값 상승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7월 2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15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000원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전체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0.36%p 하락하며, 엔/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0.17%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기업의 채산성 향상에는 원화약세와 엔화강세가 유리하다는 이론 및 경험과 부합된다.

**원자재와 환율  
변동폭 상승**

많은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주목하고 있는 중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은 그 타격이 대기업보다 클 수밖에 없다. 환율변동성이 크면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날 수 있고 따라서 경영 안정성이 저해된다. 실제로 환율 변동폭이 크면 환투기 자본이 몰리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더구나 원자재 상승까지 겹쳐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이라면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이라는 두 가지 파도를 동시에 넘어야 한다.

**생산성향상과  
함께해야 할  
환 리스크 관리**

**환관리**

- \* 선물환 매도를 통한 헤지 \* 모든 수출 대금과 수입자재 대금에 대한 환헤지 \* 실물 외화차입 형태의 환헤지
- \* 수입과 수출시기 매칭 및 결제기간 단축 \* 환위험 관리시스템 확대(정부·시중은행 이용) \* 수출가격전가율 제고

환 리스크는 관리해야 할 것이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리스크 관리 방법 중 하나가 환헤지인데 환율변동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는 것을 말하는 환헤지(換Hedge)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며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미래 특정시점에 필요한 외환을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미리 구매함으로써 환율을 확정짓는 환헤지(換Hedge)를 가장 잘 쓰는 업종으로 국내에선 조선분야를 꼽는다. 수출물량이 많고 제품계약에서 대금을 받는 과정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환헤지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대형 조선업체들은 대부분의 환 위험에 대해 선물환 매도를 통해 헤지하고 있다. 수주 계약을 하면 대금이 2~3년간 나눠서 지급되는데 그사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다만 업체별로 헤지에 대한 범위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최근 환율 변동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 큰 틀의 환헤지 전략을 고수하면서 약간의 유연함을 더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원화결제를 도입한 삼성중공업의 경우 모든 수출 대금과 수입자재 대금 등에 대해 일일이 환헤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대금 지급이 3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적절한 선물환 가격을 받기 어려워 헤지를 하지 않는 비중이 높은 기업도 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선물환 매도 대신 실물 외화 차입 형태로 환헤지에 나서고 있다.

철강사들의 경우 환헤지 대신 수입과 수출 시기 매칭, 결제기간 단축 등을 통해 환차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처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환헤지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환헤지 상품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를 본 뒤 상품 헤지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또 은행들의 선물환 서비스도 눈여겨 볼만하다. 환율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수출계약 체결시점과 수출대금 결제시점 사이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은 우선 정부나 현재 시중은행에서 진행하는 환위험 서비스를 통해 환위험 관리시스템을 확대하고 수출가격전가율 제고를 위한 품질, 마케팅, 제품차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은행들의 환위험 서비스

환율 불안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은행들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기업 맞춤형 서비스나 외환 지원 전담반 구성, 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환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은행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한다.



**신한은행** 개별 기업 전담 마케터를 두고 담당 업체를 지정, 수시로 수출입 업체의 어려움을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업체는 이를 통해 자산 유동성 파악은 물론 장기거래 업체의 경우 업체의 리스크와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출입은행** 환위험 관리 전문업체인 FX코어솔루션과 제휴를 맺고, 해당 기업의 수출입액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환위험을 진단해 분석 결과에 따른 적절한 환리스크 방안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설팅을 받은 후에도 사후관리와 함께 환위험관리 자문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우리투자증권과 공동으로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거래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외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환위험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선물환 거래 계약이행 보증금과 거래수수료를 낮춰 외환거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업은행** 환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수출입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날짜, 금액 등 외환 관련 활동을 통해 발생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면 자사의 외환 포지션 규모와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환율 변동 폭에 따른 손익이나 손실을 가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 후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개별기업의 외환 포지션 규모와 현황뿐 아니라 환율 변동 폭에 따른 손실 규모를 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외환은행** '헤지마스터(Hedge Master)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외국환거래로 인한 환위험 노출은 많으나 자체적인 환위험 산출과 관리에 자신이 없는 수출입업체 등이 실질적으로 환위험 회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환리스크 관리 서비스다.

주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제도	환위험관리지원사업	환변동보험
비용	선물환 보증금 : 0.4~5% 거래수수료 : 0.5~2원/달러	0.04~0.07% (400~700달러/100만 달러)
특징	3,000달러 이상 소액도 가능	보험료 외 부대비용 없음 (증거금, 담보 없음)
대상	외환거래하는 중소기업	수출기업
거래규모	3억 5,000만 달러	8조 5,548억 원
거래건수	3,389건	6,537건
이용절차	1. 가입신청 2. 심사 및 승인 3. 외환거래약정 4. 프로그램설치 5. 외환거래 6. 채권관리 및 사후관리	1. 인수한도 책정 2. 청약 및 보험료 납부 3. 보험증권 발급 4. 결제일 통지 5. 손익정산(보험금/환수금)
장점	실시간 온라인 외환거래 환위험관리 교육 및 컨설팅	자유로운 조기 결제 중소기업은 보험료를 할인

※거래규모와 건수는 2007년 기준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 정부의 환헤지 지원제도







# TIP 환율하락 시 좋은 환테크



## ◎ 달러수요자는 분할 매수

환율 하락 시 달러화 매도는 서두르되 달러 매입 시기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대금을 될 수 있으면 바로 송금하고 수출업체는 수출대금을 가급적 늦게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수출입을 모두 한다면 결제대금을 달러로 받지 말고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 해외 여행 시 카드 사용

해외 여행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이 실제 거래하는 시점보다 늦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사별로 외국에서 카드를 쓸 때 현지 통화로 이용한 금액의 약 1%를 국외 사용수수료로 내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 ◎ 해외펀드 가입자는 환헤지 활용

해외펀드 가입자들은 사전에 선물환 계약을 체결해 환차손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해외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증권사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을 맺는 등 환헤지를 했는지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예컨대 해외펀드에 1만 달러를 투자할 때 1,030원으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면 1년 후 환율이 1,000원으로 급락해도 달러당 1,030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환율이 1,050원대로 반등하더라도 환차익은 얻지 못한다.



## ◎ 환위험을 줄여주는 외화예금

외화예금을 적절히 이용하면 환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외화가 싸거나 얼마정도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외화정기예금 및 적금을 이용하는 게 좋다.

국민은행의 'KB적립식 외화정기예금'은 고객이 환율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뒤 실제 환율이 상한을 넘으면 적립이 중단되고 하한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할 매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외화예금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숨겨진 수수료'. 대표적인 게 '환전 수수료'인데 원화를 외화로 바꾸거나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모두 수수료가 붙는다.

또 원화를 외화로 바꿔 저금한 돈을 달러가 엔화나 유로화, 위안화 등 다른 외화로 찾을 때는 '외화 출금 수수료'를 내야 한다.